

바이오·로봇 분야 등 1209억 투입 국가전략기술 학사급 인재 키운다

교육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
희망대학 분야별 50명 이상 목표
교육과정·교원 등 체계 마련해야

정부가 바이오·로봇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학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산학협력 강화, 우수교원 확보까지 패키지형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대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산업기술평진원(원장 민병주)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특성화대학 지정을 희망하는 대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선정 규모와 추진 방향을 정부안 기준으로 먼저 공개한 것으로, 향후 국회 예산안 확정을 반영해 본 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을 이끌 학사급 전문 인재와 석·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부는 ▲기초과학·기업 협업 교과목 확대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육·실습 환경 조성 ▲탄력적인 학사·교원 인사제도 운영을 지원해 대학의 첨단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2025년에는 반도체 20개 사업단(30개교), 이차전지 5개교, 바이오 3개교에 총 1167억원을 지원해 분야별

〈첨단산업 특성화 인재양성 대학모델 집중 육성 내용〉

/자료=교육부

학과·전공 등 추진체계 구축	·대학별 인재양성 목표 설정(분야, 규모)
	·학과·전공 운영 등 이행계획 수립, 사업추진체계 구축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기초 교육 강화 및 다양한 학문 간 융복합 강화
	·기업 참여 및 협업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
교원, 시설 등 인프라 투자	·현장경험, 전문성 높은 우수교원 확보 및 활용
	·첨단분야 교육·연수, 실습을 위한 환경 구축
탄력적 학사 운영	·학교 밖 일·학습 경험 학점 인정 확대
	·교원인사제도 운영개선(산학협력, 혁신적 수업 독려)
취업 및 진학 지원	·첨단분야기업 취업 연계 지원
	·우수학생 유치 및 대학원 진학 등 연구역량 강화

특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2026년에는 지난 5월 고시 개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된 ‘로봇 분야’를 신설해 바이오 2개교, 로봇 3개교 등 총 1209억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먼저 분야별 연간 최소 50명 이상의 인재 양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교육과정·교원·기업 협업 등 종합적인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산업계 수요에 맞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공학 기초교육과 심화과정을 포함한 산업계 진화형 교육과정 확대와 특성화 분야 연계 교육과정 개발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실험·실습 기자재 집적화와 우수교원 확보 등 교육 기반 인프라 구축, 학점 연계형 일학습 프로그램·산학협력 실적 인정 확대 등 제도 개선, 진

학·취업 상담 강화와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등 체계적인 진로 지원도 준비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특성화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규제개선 체계 운영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 운영 ▲우수사례 공유 및 성과 확산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학 특성화 모델을 구축해 첨단산업 핵심 인재 양성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인재 양성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등 첨단 분야 특성화대학을 적극 지원해 취업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동시에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AI 모의면접’ 등 수험생 입시설계 도와

서울시 ‘서울런’서 대입지원 프로그램
전문가 투입 ‘1대1 정시컨설팅’ 진행

2026학년도 수능이 마무리되면서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정시 전략 수립과 수시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 대비가 동시에 요구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서울시는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을 통해 AI 기술과 입시 전문가의 노하우를 결합한 맞춤형 대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수능 직후 가채점 분석부터 정시 최종 지원, 대학별 고사까지 이어지는 입시 전 과정에서 취약계층 수험생들이 겪을 수 있는 정보 격차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최신 분석부터 20년 경력 전문가의 1대1 밀착 상담, 수시 마지막 관문인 논술 지원까지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대입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

먼저, 이달 말 서울런 회원 중 수험생(2009년생부터) 500명을 대상으로 ‘AI 진로·진학 코치’를 신규 도입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이 수능 가채점 성적을 입력하면 AI가 1220만

건의 합격·불합격 데이터와 1553개 고교 정보를 분석해 정시 합격 가능 대학을 예측하고, 학생부 기반 모의 면접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

또한 학생부를 기반으로 희망 대학별 ‘AI 모의 면접’, 희망 전공과 연계된 ‘탐구 주제’ 추천 등 입체적인 입시 설계를 돕는다.

AI 진로·진학 코치의 자세한 안내와 참여 정보는 서울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1대1 정시컨설팅’도 진행한다. 20년 이상 경력의 현직 진로·진학상담 교사, 대입상담센터 전문 인력 등 컨설턴트단이 수험생의 성적·적성·진로를 종합 분석해 지원 가능 대학 리스트를 제공하고, 교차·적정·소신 지원 등 최적의 정시 지원 포트폴리오를 설계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수능에 응시한 서울런 회원이며, 11월 17일 오후 4시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70명을 모집한다. 상담은 12월 8일부터 연말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노인돌봄 ‘파주시은빛사랑채’ 우수기관 선정

파주시, 맞춤형 사례관리 등 높은점수

파주시가 파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파주시은빛사랑채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합평가 시범사업’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3년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운영한 전국 60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 품질 ▲사례관리 전문성 ▲현장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파주시은빛사랑채는 건강·돌봄 요구 기반의 맞춤형 사례관리, 생활지원사 교육 및 관리체계, 지역사회 복지·의료기관과의 연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 내에서는 단 5개 시군만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파주시의 돌봄 정책 수준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일반·중점·퇴원환자군으로 재편하고, 전국 1만 명 규모의 퇴원환자 단기 집중 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분야를 기존 4개에서 5개로 확대하고, 전담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인원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전달 체계 전반의 변화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파주시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의견을 중앙정부에 적극 제출할 계획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교육청, 체대 입시 학생 집중지원

오늘 체육계열 대학 정시 진학 설명회
학생·학부모 등 700여명 참여할 듯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체육계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정시 설명회와 실기 모의평가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수능 직후부터 정시 전략 수립과 실기 준비가 동시에 요구되는 시기를 고려해, 공교육 기반의 체계적인 체육계열 진학지도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서울고등학교에서 ‘2025년 체육계열 대학 정시 진학 설명회’를 연다. 지난 7월 열린 수시 설명회에는 1000여 명이 참석한 바 있으며, 이번 정시 설명회에도 약 700명의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회에서는 체육계열 입학 전형에 대한 전체 구조와 최신 경향을 안내하고, 현직 교사들이 연구·분석한 대학별



지난 6월 개최된 서울미래체육인재한마당 모습. /서울시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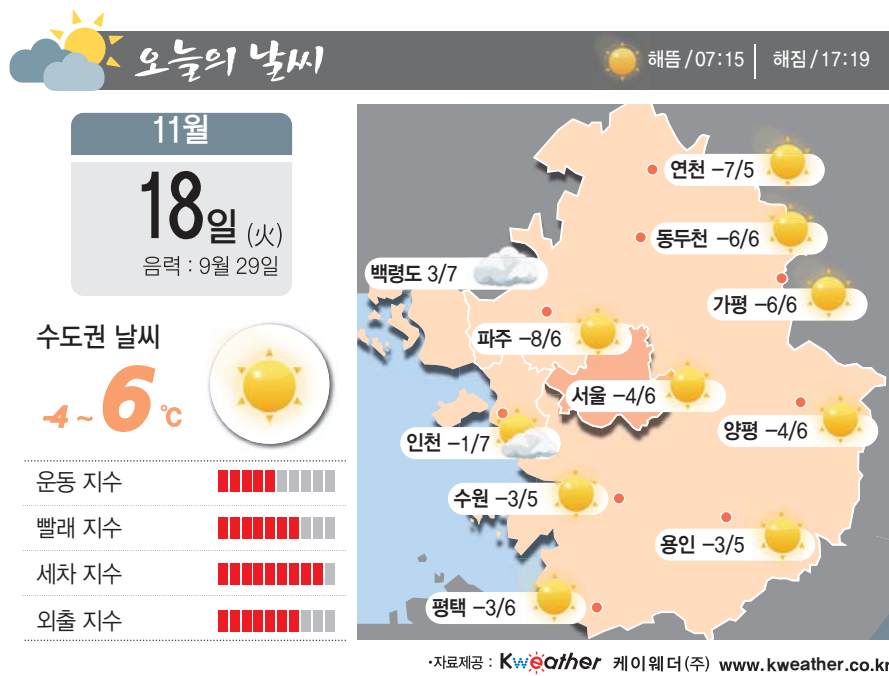
입학요강과 전형 결과를 바탕으로 합격 전략을 제시한다. 주요 체육계열 대학 재학생들이 참여해 학교별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실제 입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멘토링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체육계열 진학자료를 모두 ‘서울학교체육’ 포털에서 공개하고 있다. 실기고사 모의평가 기록과 합격 사례 등을 활용해 학생 개인의 진학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으

로, 체육계열 입시 정보가 공교육 중심으로 이동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어 20일에는 서울시교육청학생체육관에서 ‘2025학년도 하반기 서울미래체육인재한마당’을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두 차례 운영하는 공교육 주관 실기고사 모의평가로,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전 감각을 점검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이번 하반기 한마당에는 고등학생 850명이 참가해 자신의 실기 역량을 살펴볼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는 전문적인 진학지도 역량을 갖춘 체육 교사들이 많다”며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교육 중심의 체대입시 지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학생들이 사교육비 부담 없이 학교 안에서 체육계열 대학 진학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테슬라, 미국 생산 차량 ‘노 차이나’ 선언…미·중 갈등 속 공급망 대전환
▲日GDP 6분기 만에 감소…다카이치 ‘경기 부양’ 명분 강화 /사진 뉴시스

▲트럼프, 8월말 이후 인텔 등 최소 1200억원대 채권 사들여
▲美, 이탈리아산 파스타에 관세 추가 검토…최고 107% 가능성에 업체 긴장

▲싱가포르 PDG, 한국에 첫 데이터센터 착공…1조원 투자
▲대만, 美와 ‘환율 조작 불가’ 합의…대만달러 절상 전망